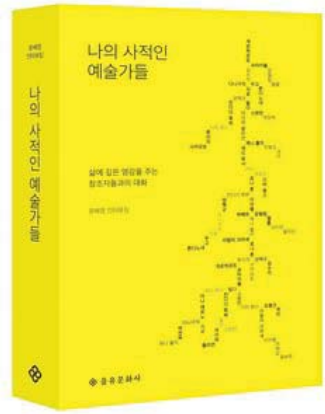


# 동시대 예술인과 '슬기로운 인터뷰'

'보그' 피쳐 에디터 출신 디렉터  
'나의 사적인 예술가들' 출간  
김수자·박찬욱 등 이야기 실려



"예술가들의 유일한 임무라면 세상을 짚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사유를 흔들림 없이 진전시켜 나가는 것일 겁니다.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확산, 용기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확고한 상태가 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는 건지 저는 늘 갑탄합니다."

'보그', '바자' 등 패션잡지에서 피쳐 에디터로 근무했던 윤혜정(국제갤러리 디렉터)씨가 '나의 사적인 예술가들'을 출간했다.

동시대 유명 예술가 19명과 대화한 '슬기로운 인터뷰'가 담겼다.

게르하르트 슈타이너, 다니구치 지로, 디터 람스, 우고 룬노네, 이자벨 위페르, 에드 루샤, 프랭크 게리, 류이치 사카모토, 김수자, 박찬욱, 탈다 스윈턴, 아이작 윌리엄, 제니 홀저, 아니 에르노, 칸디다 회퍼, 로니 혼, 양혜규, 장 필립 델롱 등의 이야기가 실렸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생각지 못한 것을 생각토록 만드는 힘에 관심 많았던 저자는 예술가를 통해 그 능력을 끄집어냈다.

윤혜정: 당신처럼 한 시대를 풍미한 예술가는 어디에서 영감을 받으나요?

에드 루샤: 제가 영웅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영감을 받아요. 제 영웅은 종종 2~4인치 크기의 나뭇조각 같은 죽어 있는 것들이죠. 결론은, 나무는 송고한 대상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윤혜정: 한 가지 일을 수십 년 동안 지속하

며 산다는 건 상상조차 힘든 일입니다. 그걸 운이라고 생각하나요, 운명이라고 생각하나요?  
에드 루샤: 운이든 운명이든, 나에게서 시간이 얼마나 흐르든 제 직업에 질리지 않는다는 점이 더 중요해요.

- '에드 루샤' 중에서/ p.303-

디자인, 건축, 그림, 사진, 문학, 영화, 출판, 음악, 만화... 창조적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현대 거장들의 웅장한 내면세계를 수집한 보석같은 말과 글이 매력이다.

우리가 엄혹한 현실을 살아내느라 놓친 세계의 일부, 우리의 평범한 삶을 빛나게 환기시키는 예술가들의 독특한 사고 방식을 엿볼 수 있다. 책에는 국내에서는 보기 어려운 작품과 인물 사진도 100점 이상 실려 있어 글 읽기의 승흥을 터준다. 532쪽, 율유문화사, 2만3000원. /뉴스시스

## 국민 100만명에 380억 쏟아... 최대 4만원 숙박할인권 지원

문체부-관광공사, 14일부터 시행... 농어촌민박 등서 사용 가능

정부가 가을철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총 100만명에게 380억원 규모의 할인 쿠폰을 내놓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가을철 국내 숙박시설 예약 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K-방역과 함께 하는 대국민 숙박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쿠폰의 총 발급규모는 100만 장으로 3만원 할인권(숙박비 7만 원 이하 시) 20만장, 4만원 할인권(숙박비 7만 원 초과 시) 80만 장이다.

숙박예약은 14일 10시부터 가능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총 27개 온라인여행사를 통해 개인당 1회 발급받을 수 있다. 단 투숙 날짜는 관광 내수시장의 비성수기 활성화, 추가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 9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로 한정된다.

쿠폰을 발급받으면 유효시간(당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달 오전 7시) 내 쿠폰을 사용해 숙박시설 예약을 해야하며, 시간 내 사용하

지 않거나 예약 취소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엔 자동 무효 처리된다. 다만 이럴 경우에도 100만장의 쿠폰이 전부 소진되기 전에는 쿠폰 재발급이 가능하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로 등록·신고한 시설이다. 미등록 숙박시설, 해외 온라인여행사를 통해 제공되는 숙박시설, 대실에는 쿠폰 사용이 불가능하다.

또 공사는 대내외 유관기관·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혜택과 지원사업도 마련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문화누리카드' 사용자들에 대한 혜택 지원, 온라인예약이 어려운 장애인에 위한 지원, 한국관광품질인증소 혜택 등도 준비했다.

참여 여행사 역시 다양한 자체 행사를 기획해 기획상품전, 카드 할인, 포인트 적립, 할인권 중복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사는 온라인여행사들과 함께 안전한 숙

박여행을 위해 안전여행가이드를 제공하고, 불법 숙박시설에 대한 모니터링도 전개한다.

이 사업은 지난 5월26일 열린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위기에 처한 관광업계 지원과 국민들의 휴식, 치유를 위해 논의했던 'K-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숙박할인권포털 안내 누리집(kstay.interpark.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가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온라인 여행사나 숙박업소는 운영대행사인 인터파크 전담지원센터(1670-1311)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석 공사 관광복지센터장은 "특히 중소여행사 참여 확대를 위해 중소전문관을 별도 운영하며, 11번가와 함께 이들 여행사들의 상품판매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공사와 참여 여행사, 숙박업소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뉴스시스

## 순창 단오제 고증 복원 '첫 발걸음' 내딛다

군, 전문가 기획회의 열어... '대모산성 등 분석 통해 원형 복원 재현 중요'



순창군이 우리 민족 전통 세시풍속 문화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순창 단오제'를 고증 복원하기 위한 관계 전문가 기획회의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순창군이 우리 민족 전통 세시풍속 문화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순창 단오제'를 고증 복원하고,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선양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군은 지난 8일 순창 단오제의 고증 복원을

위한 관계 전문가 기획회의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순창군이 주최하고, (재)조선문화유산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회의는 중앙대학교 송화섭 교수 등 역사학, 민속학, 국악, 향토사 전문가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자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환영인사를 통해 "순창 단오제는 고려시대 이래 약 700년간 풍년을 기원하고, 지역민의 단합을 공고히 한 일종의 축제 행사"리면서 "이번 기획회의를 통해 순창 단오제의 고증과 복원을 위한 학술적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회의를 통해 참석 전문가들은 "순창 단오제는 고려시대 이후 일제강점기에 탄압으로 중단되기까지 대모산성(일명 흩어머니산성, 전북도 문화재자료 제70호)에서 거행되었다"며 "성황신앙의 역사가 목판에 기록된 '순창성황대신사적현판(국가민속문화재 제238호)'과 대모산성에 대한 학술자료의 고증과 분석을 통해 원형 복원의 재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순창 단오제에 대한 구전 자료의 채록과 강원도 강릉, 경기도 시흥, 전남 영광 법성포 등 타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단오제 사례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복원 재현되어야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라는 의견을 모아, 순창군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판소리 최고 권위' 동리대상 수상자 24일까지 공모

시상식은 11월 6일 동리국악당서

(사)동리문화사업회가 '제30회 동리대상' 후보자를 오는 24일까지 공개모집 한다고 10일 밝혔다.

동리대상은 고창군(군수 유기상)과 (사)동리문화사업회(이사장 이민우)가 동리 신재효의 문화예술사적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판소리 진흥에 업적을 남긴 인물을 선정해 매년 시상해 오고 있는 대한민국 판소리 부문 최고 권위의 상이다.

후보자 신청 자격은 국가·지방 판소리 무형문화재나 판소리 연구 또는 관련 분야에 탁월

한 업적을 남긴 창자, 고수, 연구자와 판소리 진흥에 크게 기여한 자(법인 포함)로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동리대상은 심사위원회 비공개 토론 무기명 투표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제30회 동리대상 시상식은 오는 11월6일 오후2시 동리국악당에서 열리며 수상자와 제자들이 꾸미는 축하공연도 함께한다.

고창군은 판소리 여섯바탕을 집대성한 동리신재효의 유업을 계승하고 판소리 발전을 위해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대회, 판소리 버스킹·체험 등 판소리 발상지 성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 로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